

# 한중일의 대 아세안 관계의 변화와 한- 아세안 협력의 미래

유 기 은



한중일의 대 아세안  
관계의 변화와  
한-아세안 협력의 미래

유 기 은

(제주평화연구원)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집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 한중일의 대 아세안 관계의 변화와 한-아세안 협력의 미래



## ▶▶▶ 목차

1. 서론 .....	8
2. 한, 중, 일의 대 아세안 분야별 협력 .....	10
3. 언론기사 빅데이터와 설문조사로 살펴본 한중일의 대아세안 관계 .....	20
4. 결론을 대신하여: 한-아세안 협력전략 .....	25
참고문헌 .....	27





한국은 강대국 중심 외교로부터 외교 다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아세안과의 협력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2017년부터 실시된 신남방정책은 아세안과 인도와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의 인태전략의 큰 틀 안에서 아세안과 심화된 협력을 추구하기 위해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을 발표하였다. 한편 중국은 1991년 아세안과 대화관계 수립 후 2003년 아세안-중국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시켰으며, 작년에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합의했다. 2010년 중국-아세안 FTA 이후 교역 및 투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일대일로 구상(Belt and Road Initiative)의 대규모 협력사업을 통해 아세안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은 아세안지역에서 매우 오랫동안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일본의 대아세안 정책은 부상하는 중국에 대응하고 이를 견제하고자 하는 광범위한 전략의 중요부분을 이루고 있다.

중국, 일본, 또는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 각각에 대해 연구한 논문들은 상당수 존재하지만 정책을 서로 비교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일본의 대 아세안 정책을 외교, 경제, 안보의 분야에서 비교해보고 언론기사 빅데이터와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통해 아세안의 한중일 관계와 국민들의 인식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아세안 협력관계의 발전을 위해 어떠한 정책과 전략이 필요한지 논해보고자 한다.

**키워드:** 아세안, 한-아세안, 일-아세안, 중-아세안, 협력

## 1. 서론

한국은 강대국 중심 외교로부터 외교 다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아세안과의 협력을 높이 고자 하고 있다. 2017년부터 실시된 신남방정책은 아세안과 인도와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 한 대표적인 정책이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의 인태전략의 큰 틀 안에서 아세안과 심 화된 협력을 추구하기 위해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을 발표하였다. 한편 중국은 1991년 아세안과 대화관계 수립 후 2003년 중국과 아세안의 관 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시켰으며, 2010년 중국-아세안 FTA 이후 교역 및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일대일로 구상(Belt and Road Initiative)의 대규모 협력사업을 통해 아세안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은 아세안지역에서 매우 오랫동안 매우 큰 영 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일본의 대아세안 정책은 부상하는 중국에 대응하고 이를 견제 하고자 하는 광범위한 전략의 중요부분을 이루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의 대아세안 협력 은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아세안을 향한 세 국가의 접근법은 외교, 경제, 안보 협력의 분야 에서 어떻게 상이하게 나타나는가? 반대로 세 국가의 협력 방식이 수렴하는 지점이 존재하 는가?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을 중국과 일본의 정책과 비교하며 향후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이 나아갈 길에 대해 고민해본다.

중국, 일본, 또는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 각각에 대해 연구한 논문들은 상당수 존재하지만 정책을 서로 비교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대표적으로 배기현(2017)은 중국과 일 본의 대아세안 정책의 특징을 비교함으로써 두 국가의 정책이 내용과 제도화 측면에서 유 사 발전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일본과 중국의 대아세안 협력 사업의 내용과 지역이 상 당히 중복되는 측면 존재한다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양국은 동아시아 역내주도권 확보 라는 유사한 목표로 인해 상호 견제하고 있으며 대아세안 협력 내용, 제도화 방식에 있어 유사발전해 나가는 ‘경쟁적 수렴’의 경향 보인다(배기현 2017). 한국, 중국, 일본의 대 아세 안 해외직접투자(FDI) 흐름을 비교한 연구도 존재한다. Liu and Feng (2021)는 한국, 중 국, 일본의 아세안 해외직접투자 선택은 서로의 결정의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 에 따르면, 중국과 한국의 대아세안 투자는 일본의 대아세안 투자의 영향을 받지만, 일본은 중국과 한국의 대아세안 투자의 영향을 적게 받고 독자적으로 움직인다. 한국의 대아세안 투자는 중국보다는 일본의 대아세안 투자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반면, 한국의 대 아세 안 투자가 일본과 중국의 대아세안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편이다.

위와 같은 연구들은 한국, 중국, 일본의 대아세안 협력에 대한 결정은 서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점을 시사한다. 하지만 한중일의 대아세안 협력이 변화하는 과정을 미중세력경쟁과 그에 따른 중국, 일본, 한국의 전략적 선택의 맥락 속에서 아세안 정책을 비교한 연구는 많지 않다. 한국과 중국, 일본의 대 아세안 정책을 외교, 경제, 안보분야에서 비교해보고 한국과 아세안 협력관계의 발전을 위해 어떠한 정책과 전략이 필요한지 논해보고자 한다.

## 2. 한, 중, 일의 대 아세안 분야별 협력

### (1) 외교관계

일본과 아세안은 1973년 처음으로 대화관계를 수립하고 1977년 3월 아세안-일본 포럼을 설립하며 외교관계를 공식화했다. 1977년 8월 후쿠다 다케오 총리가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도중에 마닐라에서 이른바 ‘후쿠다 독트린’을 발표하였고, ‘가슴과 가슴(heart-to-heart)’이라는 이 독트린의 내용은 이후 일본의 대아세안 정책의 큰 원칙이 되었다. 이는 일본이 군사대국화의 길을 포기하고 아시아 국가와의 연대를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에 따라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과 협력이 이어졌다.

2003년에는 아세안(ASEAN) 10개국과 일본과의 관계강화를 목적으로 한 일본·아세안 특별정상회담이 열렸고 일본과 아세안을 중핵으로 한국·중국·호주·뉴질랜드까지 포괄하는 ‘동아시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는 내용의 ‘도쿄선언’이 발표되었다. 도쿄 선언 10년 후인 2013년, 아베수상은 아베독트린을 발표했다. 이 독트린의 내용인 아세안 외교 5원칙은 (1)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 보편적 가치확대를 위한 공동노력, (2) 힘이 아니라 법이 지배하는 바다를 함께 사수, (3) 무역과 투자 확대, (4)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와 전통의 공동 육성, (5) 젊은 세대 교류 촉진의 내용을 담고 있다.<sup>1)</sup> 이는 도쿄선언 때와는 달리 중국에 대한 견제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었으며 특히 가치관과 규범에 대한 강조를 하고 남중국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는 점에서 중국을 압박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아베독트린은 ‘평화외교’에서 ‘적극적 평화외교’로의 전환이라고 평가받는다(이지영 2018).

일본의 대아세안 외교관계는 중국의 부상과 함께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일본의 대아세안 정책과 지원에는 중국에 대한 일본의 ‘수용과 균형(accommodation and balance)’ 정책이 반영되었다(Yoshimatsu & Trinidad 2010). 즉 일본은 동남아시아에서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중요성을 어느정도 수용하고 균형을 맞추는 것을 외교적 이니셔티브로 삼고 있다. ASEAN 통합에 대한 지지 선언, 공적개발원조(ODA) 증액, ASEAN과의 양자 및 지역 FTA/EPA 체결, 그리고 메콩 지역 발전에 대한 최근의 이니셔티브와 적극적인 참여는 이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증가에 대한 일본의 반응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협력과 경

1) “The Bounty of the Open Seas: Five New Principles for Japanese Diplomacy”, Policy speech addressed by H.E. Mr. Shinzo Abe, Prime minister of Japan. Jan 18, 2013, Jakarta. [https://www.mofa.go.jp/announce/pm/abe/abe\\_0118e.html](https://www.mofa.go.jp/announce/pm/abe/abe_0118e.html) 참고.

쟁의 이니셔티브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Yoshimatsu & Trinidad 2010).

중국은 1991년, 한중일 중 가장 늦게 아세안과 대화 관계를 수립하고 1996년 아세안의 포괄적인 대화 파트너가 되었다. 1997년에는 중국과 아세안은 21세기를 향한 상호 신뢰의 선린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 특히 아시아 외환위기 시기인 1997년부터 1998년까지 중국은 위안화 평가절하를 주장하며 아세안 국가들에 재정 지원을 하여 신뢰를 얻었다. 이후로 아세안은 다양한 다자간 채널을 통해 중국의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

2003년 10월 중국은 아세안과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 공동선언’을 체결하고 ‘동남아 우호협력조약’에 가입해 양자 간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중국은 양국 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적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중국-아세안 선린우호협력조약’ 체결도 제안했다. 2021년에는 중국과 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면서 중국과 아세안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하는데 합의했다.

한편, 한국은 일본보다는 늦지만 중국보다는 2년 빠른 1989년, 아세안과 대화관계를 수립하였고 2004년에 포괄적 협력 동반자관계, 2010년에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점차 격상시켜 나갔다.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는 점진적으로 발전해왔지만 한국 외교의 중요한 상대가 되지 못하고 강대국 중심의 외교로 인해 아세안정책은 늘 주변부에 위치해왔다.

이에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수준을 높여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4강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등 3P를 원칙으로 내세운 신남방정책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세웠다. 첫째, 사람(People) 분야에서는 신남방지역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한-신남방 소프트 협력 강화, 신남방 지역 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 청소년 교류협력 강화, 아세안 진출기업 노무 관리 및 인권경영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둘째, 상생번영(Prosperity) 분야에서는 협력수요와 효과가 높은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FTA를 활용한 한국기업의 GVC 신남방지역 확대 사업, 아세안 4대 분야 연계성 협력, 스타트업 진출 생태계 활성화 사업,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협력, 5G 수출 역량 제고, 인도지역 전략사업 발굴 추진을 목표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평화(Peace) 분야에서는 전통·비전통 안보에 대해 포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메콩지역 협력강화, 한-신남방 해양안전협력 강화, 싱크탱크 상호 협력강화, 미-중 등 주요국의 역내지역구상과 조화로운 협력 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sup>2)</sup> 신남방정책의 정책목표와 구체적 중점사업은 진정성이 부족했다고 평가

2) “신(新)남방정책” 2021.9.6.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53887> (접속일자 2022.12.01) 참고

되었던 기존 대아세안 외교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아세안 국가들로부터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

최근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계기로 한-아세안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자고 공식 제안했다. 또한 한국의 인태전략의 큰 틀 안에서 아세안과 심화된 협력을 추구하기 위해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을 발표하였다.<sup>3)</sup> 한국 정부는 ‘아세안 중심성 (ASEAN Centrality)’과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AOIP)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1) 한-아세안 외교당국 간 전략대화의 활성화와 한-아세안 국방장관회의 정례화 (2) 한-아세안 FTA에 디지털 통상협력 내용 추가 (3) 기후변화와 환경분야 협력을 구체적인 목표로 제시하였다.

## (2) 경제협력

미국, 호주, 유럽연합 등이 아세안 역내협력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하는 반면, 한중일은 지역협력체로서 아세안의 결속력 증진을 도우려는 노력보다는 아세안 구성국 간의 개별 협력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왔다(배기현 2016). 이러한 특징은 특히 경제 협력 측면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한중일은 경쟁과 견제 속에서 서로 경합하며 다른 국가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덜 한 지역을 발견하여 틈새를 파고드는 전략을 취해왔다.



[그림1] 일본, 중국, 한국의 아세안 및 아세안 구성국 간 FTA/EPA 가입

우선 한중일의 아세안과의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일본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은 아세안 내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2002년 일-아세안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

3) 대통령실, “아세안 및 G20 정상회의 순방성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 11.16  
<https://www.korea.kr/news/presidentView.do?newsId=148908467> (접속일자 2022.12.11) 참고.

정 (Joint Declaration on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SEAN - Japan; AJCEP)이 채택되었고, 2003년 동남아시아 우호협력조약(TAC) 가입의사를 표명하는 문서에 조인했다. 2001년부터 2008년 사이 일본은 일-아세안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를 비롯하여 총 8개의 EPA를 아세안 및 그 구성국과 체결하였다. 2002년 싱가포르와의 EPA를 시작으로 2005년 말레이시아, 2006년 필리핀, 2007년 태국, 2008년에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하여 소위 ‘아세안 6’라 불리는 아세안 내 여섯 개 주요국과의 경제동반자협정을 모두 체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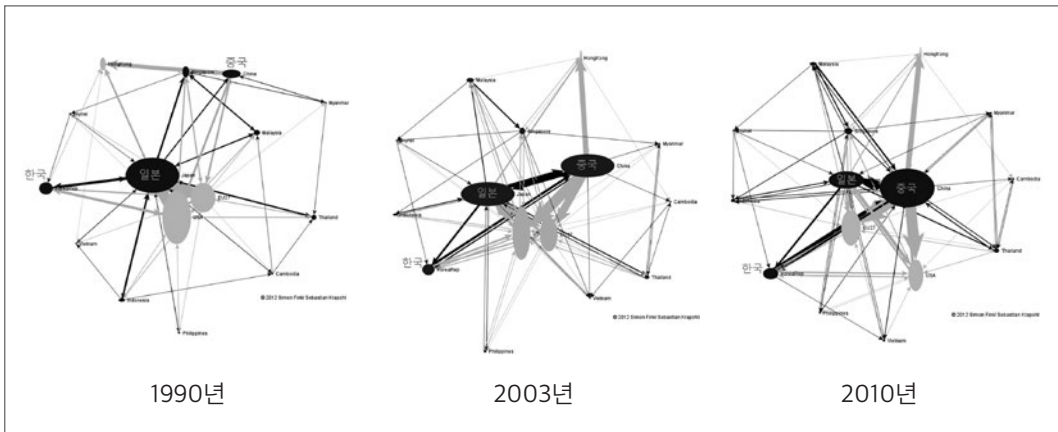
중국의 경우 2001년 11월 6일 주룽지 중국 총리가 제5차 중국-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China-ASEAN Free Trade Area: CAFTA) 설립을 처음으로 제안했고 2002년 11월, 양측은 무역 협정에 서명했다. 2010년 1월부터 중국과 아세안 6개국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간 제품의 90% 이상이 무관세를 달성했다. 2014년 8월, 중국과 아세안은 CAFTA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에 대한 협상을 개시했다. 2015년 11월, 중국과 ASEAN은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개정에 관한 의정서와 이에 따른 중국과 ASEAN 간의 협정 일부를 체결하였고, 2019년 10월에 전면 발효되었다. 2020년 6월까지, CAFTA의 틀 안에서 7,000개의 제품에 대한 관세가 폐지되었고, 90% 이상의 상품이 무관세를 달성했다(Bi 2021).

한국은 2005년 일본과 마찬가지로 아세안 국가들 가운데 싱가포르와 가장 먼저 FTA를 체결했으며 이듬해인 2006년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2015년 베트남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데 이어 신남방정책이 실시된 2017년 이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과의 FTA가 타결되었다.



[그림2] 아세안의 전세계 주요국 수출 수입 비중

2020년 기준 아세안의 수출 수입 비중을 살펴보면 아세안의 대중국 무역비중이 한국과 일본과의 무역을 합친 것보다 많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수출의 경우 중국으로의 수출이 20%, 미국으로의 수출이 19%로 서로 비슷하다. 반면, 일본으로의 수출은 9%, 한국으로의 수출은 5%에 그치고 있다. 수입의 경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전체의 31%, 일본 10%, 한국 9%로 수출에 비해서 수입에서 중국의 상대적 비중이 더 높다.



[그림3] 아세안+3 무역량 네트워크<sup>4)</sup>

일본은 1977년 후쿠다 독트린 이후 아세안지역에 막대한 투자 및 지원을 지속하여 한,중,일 가운데 가장 오래 아세안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해왔지만 2000년대 이후 중국의 경제력 및 무역량 증가로 아세안 내 경제적 영향력의 많은 부분을 중국이 가져가게 되었다. [그림 3]의 1990년 무역네트워크를 보면 일본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등 아세안 주요국과 긴밀한 연결망을 유지하며 역내 무역 네트워크에서 유일한 중심 국가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을 의미하는 네트워크 노드 크기(무역량)에 비하면 한국과 중국은 아세안과의 무역량이 현저히 작으며 한국과 중국의 대아세안 무역량의 크기가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2001년 중국의 WTO가입으로 중국의 역내 무역량 빠르게 증가한다. 중국의 WTO가입 2년만인 2003년, 중국과 아세안의 무역량은 일본과 비슷한 수준까지 증가하였다. 2003년 무역 네트워크에서 중국은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을 주요 무역 상대국으로

4) 노드(node)의 면적은 무역량을 나타내며 노드 간의 연결선의 두께는 연결선 출발지에서 도착지로의 수출량을 나타냄. 위 그래프에는 각 국가(노드)의 가장 대표적 세 수출/수입 국가의 연결선만이 표시됨. (출처: Fink and Krapohl (2012) <https://sebastiankrapohl.wordpress.com/networks-2/>)



삼아 일본과 함께 네트워크의 중앙에 위치하게 되었다. 하지만 각국과의 연결을 볼 때, 여전히 일본이 중국보다 더 촘촘한 무역연결망을 유지하고 있다. 2010년에 이르러서는 중국이 역내 무역량 최고 수준을 유지하며 일본의 상대적 무역량은 감소하게 된다. 2003년 미얀마, 캄보디아 등으로 제한되었던 중국의 무역 연결망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아세안 거의 모든 국가로 확장된 것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아세안 내에서 무역 장악력을 두고 일본과 중국이 경쟁하는 동안 한국의 역내 무역 비중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1990년부터 2010년까지 네트워크의 주변부에 위치하면서 비슷한 무역비중을 유지하고 있고 무역관계는 주로 베트남, 브루나이와의 교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인프라 투자에 있어서도 아세안 내에서 중국과 일본의 경쟁이 치열하다. 일본은 다낭에서 양곤을 잇는 동서경제회랑과 호치민에서 다웨이까지 이어지는 남부경제회랑의 건설을 주도하고 있다. 메콩지역 경제에 대한 잠재성도 일찌감치 발견하여 2007년 일-메콩 지역 파트너십 프로그램과 2009년 일-메콩 정상회의를 통해 이 지역에 대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노력하였다. 1977년 후쿠다 독트린에서 2013년 아베 독트린으로 넘어가면서 일본은 새로운 ASEAN 전략을 추구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일본은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일방적인 ODA 공여에서 일-ASEAN 쌍방향의 개발협력으로 전환을 꾀하였다. (이지영 2018) 이와 함께 하드, 소프트 양면에서의 연계성 증진 또한 도모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아세안 스마트 그리드사업 (연성인프라구축 사업)으로 실현되었다(이지영 2018).

중국 또한 매우 공격적으로 아세안에 대한 인프라투자를 늘려나갔다. 일본이 동서경제회랑과 남부경제회랑 건설 사업을 주도했다면 중국은 중국 쿤밍과 미얀마 차우푸항을 잇는 석유수송관 건설사업을 포함하는 남북경제회랑 건설사업을 주도하였다. 중국과 아세안은 2018년 11월 ‘중-아세안 전략적 동반자관계 비전 2030’을 발표하고, 2020년 수출입 1조 달러, 투자 1,500억 달러를 목표로 설정했다.<sup>5)</sup> 또한 메콩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2018년 1월 프놈펜에서 제2차 란창-메콩강 협력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대규모 지원을 약속했다.

중국에게 아세안은 일대일로 건설의 중요한 파트너이기도 하다. 남북경제회랑은 중국의 안정적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원자재 수입의 주요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일대일로 건설사업에는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중국은 아세안에 디지털 인프라

5) Chairman's Statement of the 21st ASEAN-China Summit to Commemorate the 15th Anniversary of ASEAN-China Strategic Partnership(2018.11.14.)

건설을 지원함으로써 중국 주도의 인터넷 생태계를 아세안 내에 구축하고 중국과 아세안 간의 디지털 연계를 심화하고자 하고 있다(정호경 2021). 알리바바그룹의 알리페이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미얀마의 전자결제 시장에 진출하였다. 화웨이마린(Huawei marine)의 경우 동남아시아에서 12개 이상의 해저 광케이블 프로젝트를 완료했으며,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을 중심으로 20여 개에 달하는 해저 케이블이 추가로 건설 중이다(Harding 2019). 5G 분야에서도 화웨이가 태국과 필리핀에 5G 통신망 서비스 출시를 지원했다. 빅데이터 센터 구축과 정보교류에 있어서는 라오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센터를 비롯한 아세안 각국에 클라우드 빅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정호경 2021).

한국의 인프라투자는 일본과 중국에 비교하면 적은 수준이지만 다양한 통로를 통해 건설사업에 참여하고 아세안과의 협력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3년 한-메콩 협력 기금 조성, 2016년 한-아세안 협력 사업팀을 설립한 것에서 나아가 2018년에는 제1차 한-아세안 인프라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한-아세안 인프라장관회의는 신남방정책의 목표인 ‘국가 간 연계성(Connectivity)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4대 중점협력 분야(교통·에너지·수자원·스마트 정보통신)의 협력을 위해 출범했다. 이 회의를 통해 2022년까지 1억 불 규모의 ‘아세안 글로벌인프라펀드’를 조성·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한-아세안의 공동선언문을 통해 인프라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①스마트시티, ②교통·수자원 등 스마트 인프라, ③국토·토지·주택·도시 및 국토정보 등 인프라 분야 3대 협력을 선언했다.<sup>6)</sup> 또한 한국정부는 올해 11월 아세안과 디지털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orea-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에 서명하였다.<sup>7)</sup>

### (3) 정치/안보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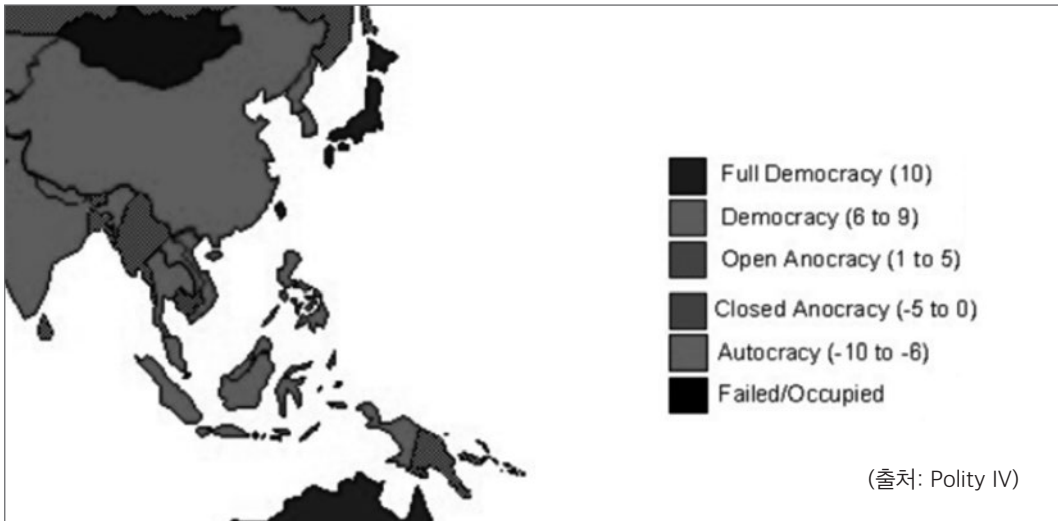
한국, 일본, 중국은 모두 1993년 설립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과 2010년 시작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ADMM) Plus에 속해 있으며 이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안보 정세 속 신뢰구축, 외교 및 국제 현안 등 관심사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 입장을 표명하

6) “신남방협력 후속, 한·아세안 10개국 인프라 협력 선언”,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8년 09월 16일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50&id=95081339](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50&id=95081339) (검색일자 2022.12.01) 참고

7) 산업통상자원부. (2022)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정식 서명으로 아세안의 디지털 허브, 싱가포르와의 디지털 동맹 구축”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년 11월 21일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37688> (검색일자: 2022. 12. 11) 참고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역내에서 중국과 미국, 일본의 긴장감이 높아짐에 따라 사실상 ARF의 실질적인 역할보다는 미국의 아태전략과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 전략으로 아세안과의 정치 안보 협력의 국면이 변화되고 있다.

특히 일본과 중국은 아세안과의 지역협력의 심화를 통해 각자의 보편 가치와 규범을 확산하고 궁극적으로 역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한다.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 아세안의 정치체제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국가들이 모두 분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일본은 최근 아세안 국가들의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 우려하고, 중국은 내정불간섭 등의 공통된 외교원칙을 내세워 아세안 권위주의 국가들과의 유대와 협력을 증진시키고자 하고 있다.



[그림 4] 아세안 국가들의 정치체제

일본은 아세안 전반에 대한 높은 지원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해왔지만 특히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 같은 상대적으로 민주적인 국가들을 중심으로 협력관계 수립해왔다. 물론 미얀마 등 권위주의 국가들에게 많은 ODA 제공하고 있지만 필요시 추가적인 ODA를 하지 않는다고 선포하며 압박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일본의 최근 아세안 대아세안 안보정책은 도쿄선언에서의 ‘일본과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협력’보다는 중국을 견제하는 쪽으로 전환되었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대아세안 안보정책은 아베신조 일본 총리가 2016년 천명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전략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 FOIPS)’의 큰 그림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어떤 안보전문가들은 FOIPS를 중국을 동아시아지역질서의 위협요인으로 간주하

는 전략으로, 일본, 호주, 인도, 미국사이의 쿼드 안보협력과 그 인식과 목표를 같이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한편 또다른 전문가들은 이를 중국까지 포용하는 의미의 새로운 지역질서 구축 전략으로서 경쟁적, 협력적 측면을 함께 강조하는 전략으로 해석하기도 한다(김석수 2019).

중국은 국내정치 불간섭 원칙 등 아세안 국가들이 고수하고 있는 권위주의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으며 최근 미얀마에서 벌어진 쿠데타 등 반민주적인 사건, 인권침해로 인한 제재에 동참을 거부한 바 있다. 이 때 미얀마 최대 공여국인 일본은 새로운 ODA 지원을 중단한 반면, 중국은 ‘일방적인 제재와 압박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고 주장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안에 반대하였다. 2021년 11월 중국-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 기념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은 패권주의와 강권정치에 결연히 반대한다”며 “중국은 패권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더더구나 대국이 소국을 괴롭히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미국이 오커스 (AUKUS·미국·영국·호주의 안보 파트너십)와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 협의체) 등의 지역적 확대를 거론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아세안국가들이 이에 동참하지 않도록 설득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미중간의 경쟁 및 대립 격화에 대한 헤징전략으로서 아세안으로 외교공간을 확장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신남방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최근 윤석열 정부 또한 경제 이외에 안보분야에서도 아세안과의 공고한 협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냈다. 구체적으로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증진함으로써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윤대통령은 한-아세안 외교당국 간 전략대화를 활성화하고 한-아세안 국방장관회의를 정례화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퇴역함 양도, 해양테러 대응 등 해양법 집행 분야 협력 강화를 언급하는 한편, 아세안과의 연합훈련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해양안전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 국방, 방위 협력 강화를 통해 역내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공동의 노력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지금까지 논의한 한중일의 외교, 경제, 안보에서의 분야별 협력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일본, 한국, 중국의 대아세안 분야별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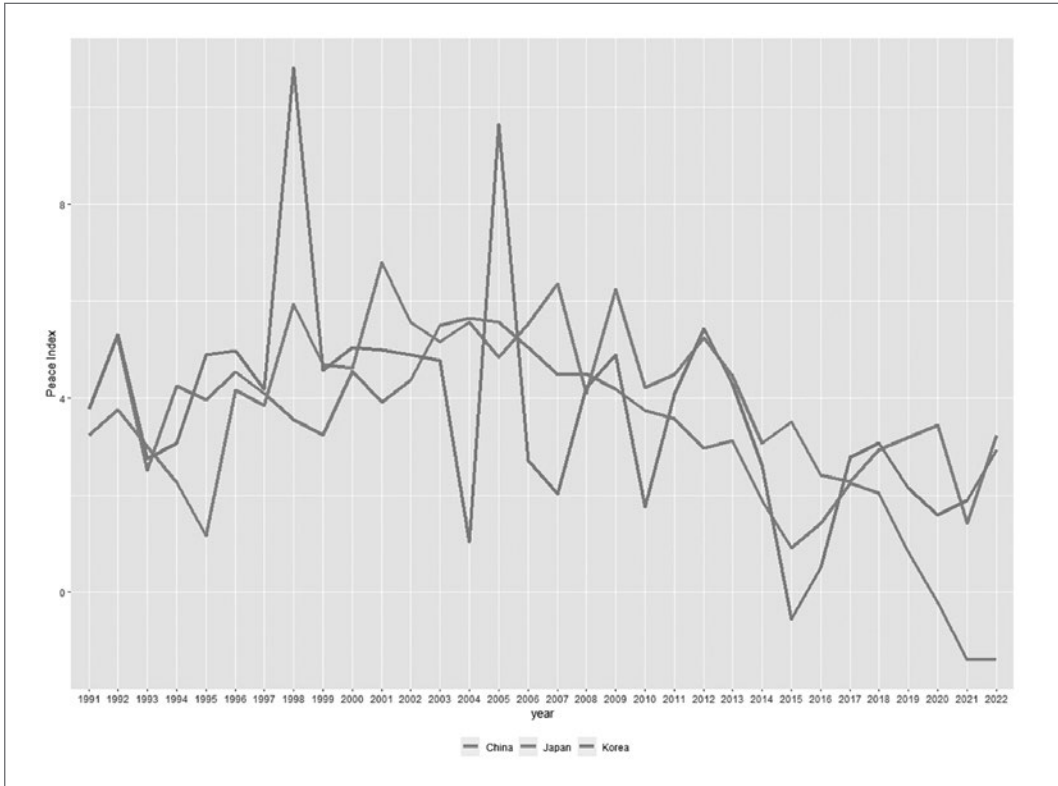
	한국	일본	중국
외교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89 대화관계수립</li> <li>• 2004 포괄적 협력 동반자관계</li> <li>• 2010 전략적 동반자관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73 대화관계수립</li> <li>• 1977 후쿠다 선언</li> <li>• 2003 도쿄선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1 대화관계수립</li> <li>• 2003 전략적 동반자관계</li> <li>• 2021 전면적 전략적 동반자관계</li> </ul>
무역/ 경제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5 한-아세안 포괄적경제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제정</li> <li>• 2016 한-아세안 협력 사업팀 설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3 일-아세안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 서명</li> <li>• '아세안 동아시아 경제연구소' 설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1년 중-아세안 기업 협의회 공식 출범</li> <li>• 2002 중-아세안 포괄적 경제협력 기본협정 서명</li> <li>• 2004 중-아세안 FTA 서명. 중-아세안 기업투자 정상회의 출범</li> </ul>
인프라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3 한-메콩 협력기금</li> <li>• 2018 제1차 한-아세안 인프라 장관회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부경제회랑, 동서 경제회랑 건설사업</li> <li>• 해양경제회랑 건설사업</li> <li>• 아세안 스마트 그리드사업 (연성인프라구축)</li> <li>• 2007 일-메콩 지역 파트너십 프로그램</li> <li>• 2009 일-메콩 정상회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얀마 캄보디아 지역 교통망</li> <li>• 남북경제회랑 건설사업</li> <li>• 미얀마-쿤밍 석유수송관 건설사업</li> </ul>
안보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4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li> <li>• 2010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 (ADMM) Plus</li> <li>• 한-아세안 국방장관회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4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li> <li>• 2010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 (ADMM) Plus</li> <li>•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전략(FOIP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4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li> <li>• 2010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ADMM) Plus</li> </ul>

### 3. 언론기사 빅데이터와 설문조사로 살펴본 한중일의 대아세안 관계

다음으로는 언론기사 빅데이터와 설문조사를 통해 기사에 반영된 한중일의 대아세안 관계변화와 아세안 국민의 한중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외교, 경제, 안보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부간 협력 이외에 아세안 국민들이 한국과 중국, 일본과의 협력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반응하는지는 향후 아세안과의 협력의 발전방향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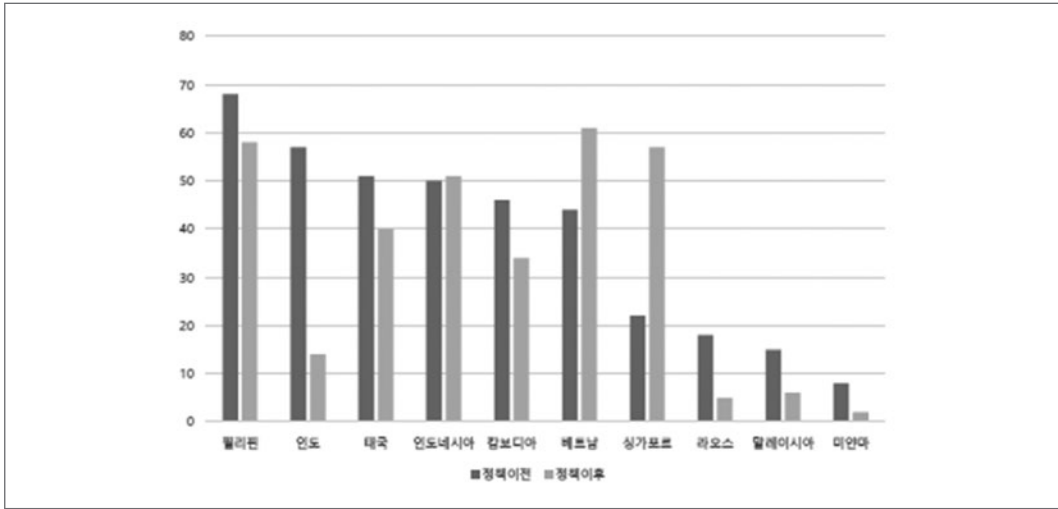
우선 언론기사 빅데이터로는 GDELT(Global Database of Events, Language, and Tone)를 이용한다. GDELT는 구글뉴스에 올라오는 전 세계 언론 기사를 15분 단위로 수집한 후 TABARI (Textual Analysis By Augmented Replacement Instructions)라는 텍스트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 코딩하여 저장한다. 제주평화연구원에서 개발한 평화지수는 GDELT에서 제공하는 국가 간 사건의 유형 변수인 골드스타인척도 (Goldstein Scale)과 기사의 평균어조(Average Tone)을 조합하여 양국간의 관계를 -20(부정적)에서 +20(긍정적)의 값을 가지는 값으로 수량화하였다.

아세안을 구성하는 10개국이 각각 한국, 일본, 중국과 맺은 관계를 합산한 결과는 아래 [그림 5]와 같다. 흥미롭게도 많은 국가간 경제교류가 있었던 시기 언론기사에 드러난 국가간 평화관계가 반드시 좋지는 않았다. 오히려 아세안에서 일본의 존재감이 가장 강했고 일본의 상대적인 ODA공여, 무역량이 가장 많았던 90년대에 언론에 드러난 일본과 아세안의 관계는 아직 본격적으로 아세안에 진출하지 않았던 한국과 중국에 비해 좋지 않았다. 2000년대 중국의 본격적인 아세안 협력이 시작되며 일본-아세안, 중국-아세안 평화지수는 역전되었다. 2010년대 이후 일본, 중국, 한국 모두의 아세안과의 평화지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의 평화지수 감소폭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국가 간의 교류가 많을수록 마찰이 늘어나고 조정이 필요한 공간이 많아지기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언론에서 다루는 이벤트 수가 많을수록 언론의 부정적인 선택편향 (긍정적인 내용의 사건 보다는 부정적인 내용의 사건을 더 많이 기사화하는 경향) 때문에 발생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향후 연구에서 어떤 요인 때문에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지 자세히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그림5] 아세안에 대한 한국, 일본, 중국의 평화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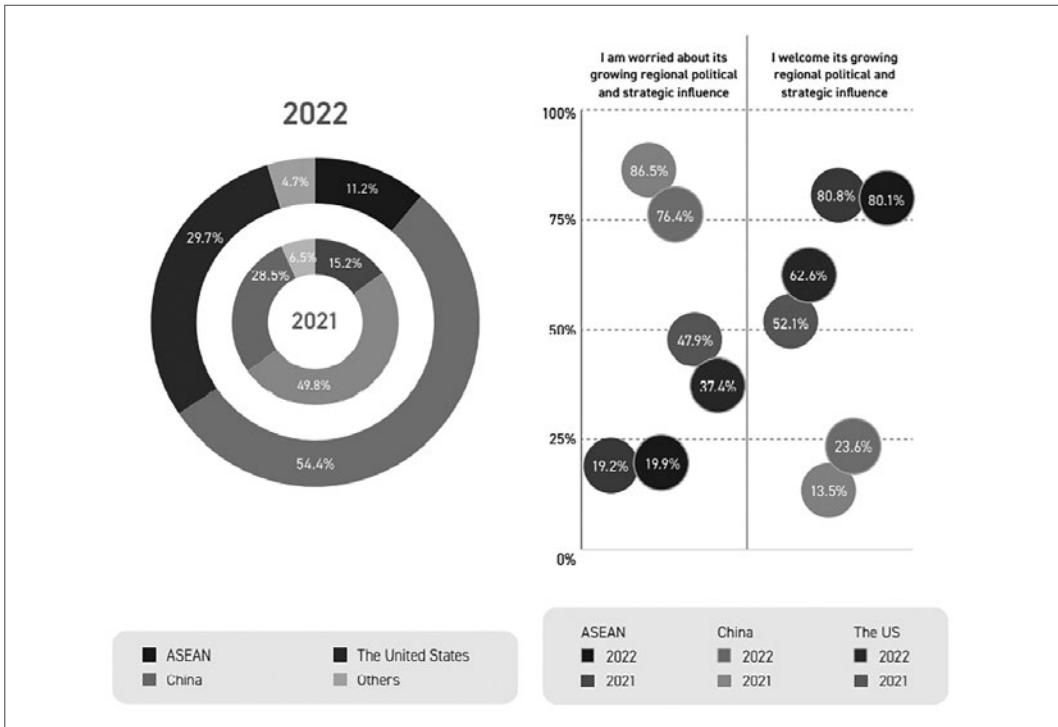
신남방정책 이후 한국의 아세안 국가와의 교류가 활발해졌는지 살펴보기 위해 언론에서 다루어진 아세안 구성국과의 사건 수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통계에 의하면 2017년 신남방정책 시행이후 베트남과 싱가포르에 대한 기사수는 크게 늘었지만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에 대해서는 보도된 기사 수가 오히려 줄어들었다. 물론, 기사 수가 협력의 정도를 충분히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컨대 기사가 적은 경우가 오히려 두 국가 간의 평화로운 관계가 유지되고 어떠한 부정적 사건이나 갈등, 이슈가 없었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협력과 교류의 결과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관없이 국가간 협력의 빈도를 측정하는 하나의 지표로서 참고할 수 있다. 싱가포르와 베트남은 기존에도 한국과 많은 교류가 있던 아세안 국가이기 때문에 신남방정책이 과연 외교공간 확장 효과를 가졌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림 6] 신남방정책 이전과 이후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 보도된 사건 수

그렇다면 동남아시아 국가의 국민들은 중국과 일본, 한국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 2022년 동남아시아 국가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The State of Southeast Asia 설문조사의 “당신이 생각하기에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영향력은 가진 국가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54.4%의 국민은 ‘중국’, 29.7%의 국민들이 ‘미국’이라고 답했다. 그 가운데서도, 캄보디아 (75.3%), 라오스 (75.0%), 미얀마 (70.9%)에서 느끼는 중국의 영향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고, 반면 필리핀(51.0%)과 싱가포르(46.8%)에서는 미국의 영향력이 높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이 높아지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76.4%, 환영한다는 응답자는 23.6%에 불과했다. 반면 미국의 높은 정치적 영향력을 우려한다는 의견은 37.4% 환영한다는 응답은 62.6%으로 환영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캄보디아 응답자의 54.1%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 수용적이었고 브루네이,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국민들은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강력히 지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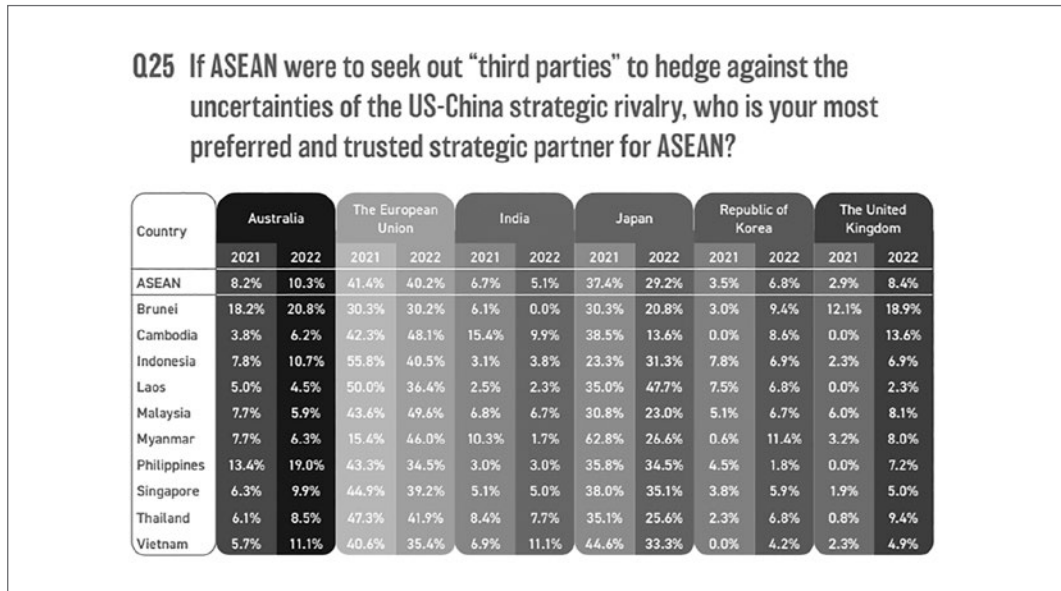




[그림 7] 왼쪽: “동남아시아에서 정치적, 전략적 영향력이 가장 큰 국가/지역 조직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른쪽: “이 강대국이 당신의 나라에 미치는 정치적, 전략적 영향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The State of Southeast Asia*)

아세안은 증가하는 중국의 영향력과 역내 미국과 중국의 경쟁과 견제 상황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다. 그렇다면 미중 전략경쟁의 불확실성 속에서 헤징할 제3의 파트너를 찾는다면 어떤 국가가 될 것인가? 40.2%의 아세안 국민이 EU를, 29.2%가 일본을 선택했다. 한국을 선택한 응답자는 6.8%였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일본을 선택한 응답자는 8.2% 감소한 반면, 한국을 선택한 응답자는 3.3% 증가하였다. 아세안은 일본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전략’ (FOIPS)과 쿼드(Quad)가 아세안의 역할과 중심성을 주변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유보하고 있다. 일부 아세안 국가들은 FOIPS를 추진하면 아시아를 두 개의 다른 블록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아세안 국가들이 미국 진영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상황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예컨대, 인도네시아는 자체적인 인도·태평양 협력 개념을 발표했지만 그 개념은 아세안 중심성 유지, 내정 불간섭, 합의적 의사결정이라는 아세안 방식 (ASEAN Way)을 강

조함으로써 일본 또는 미국 주도의 FOIPS와 의도적으로 구분하고 있다(Charissa 2018). 한국은 비록 EU, 호주, 일본, 영국에 비해서는 제3의 파트너로서 덜 선호되지만 한국에 대한 선호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2022년의 설문조사 결과가 작년에 비해 높게 나온 것은 올해 아세안 정상회의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인태전략과 아세안과의 협력전략이 아세안 국민들에게 신뢰를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4] 전략적 파트너로서 아세안의 한중일 인식: “아세안이 미중 전략적 경쟁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헤지할 ‘제3자’를 찾는다면 아세안에서 가장 선호하고 신뢰하는 전략적 파트너는 누구인가?” (출처: *The State of Southeast Asia*)

## 4. 결론을 대신하여: 한-아세안 협력전략

일찍이 아세안에 막대한 ODA 투자와 교류를 통해 아세안 역내에서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과 신뢰를 쌓아온 일본,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적극적인 인프라투자와 압도적인 무역비중으로 아세안 내에서 미국보다도 더 높은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과 비교한다면 한국의 아세안 협력 역량은 결코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아세안과의 협력에서 한국이 가지는 지정학적, 이슈별 이점을 활용한다면 협력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첫째, 안보 문제에 있어서 미중경쟁의 불확실성과 이로 인한 정책적 딜레마를 공감하되 미국, 일본, 호주와의 공동협력을 통한 아세안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앞서도 언급했듯 아세안은 중국의 높아진 영향력을 체감하면서도 중국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의구심과 반감을 가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한국이 가져왔던 고민과도 연결되는 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중국과의 대결을 피하려는 한국과 아세안의 공통된 열망은 이 지역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한국의 매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Gadd, 2021). 최근 한국 정부가 강조했듯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과 아세안 중심성을 고려하면서도 미국, 일본, 호주와의 공동 협력을 통해 아세안의 우려를 감소시켜야 한다.

둘째, 한국의 공적 개발원조를 전략적으로 증가시켜 나가야 한다. 아세안 회원국들의 경제 발전에 직간접적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ASEAN회원국들에 대한 수출 또한 증가시킨다(원용걸 2020). 무상원조보다는 유상원조가 수출에 유의미한 증가를 가져오며 이와 관련해 무상원조만 받았던 국가들보다 유상원조를 받은 한국의 ODA 중점협력국들인 ASEAN-6(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에 대한 원조가 한국의 수출을 증대 시킨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원용걸 2020). 정부는 최근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추진해 나갈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향후 5년에 걸쳐 한-아세안 협력기금은 연 3200만달러로, 한-메콩 협력기금은 연 1000만달러로,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은 연 600만달러로 올해 대비 2배 규모로 증액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다만, 베트남을 비롯한 특정 국가에만 지원과 원조가 집중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대아세안 정책과 구성국가에 대한 개별국가전략은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별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올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도 강조되었듯 다양한 분야, 특히 디지털 통상협력에

있어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유지, 강화해 나가야 한다. 중국 화웨이가 빠른 속도로 아세안의 5G, 디지털 시장을 공략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분야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가 높다. 2020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응답자의 38.5%가 삼성을 5G 인터넷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회사로서 가장 신뢰한다고 답한 반면 중국의 화웨이, 다탕텔레콤, ZTE를 신뢰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4.6% 였다. 선호되는 5G개발자를 묻는 질문에서도 베트남,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미얀마, 브루네이는 삼성이라고 답한 반면,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에서만 삼성을 화웨이보다 선호하였다. 앞으로 한국은 5G 시장에서 신뢰를 유지해 나가고 아세안 측 수요가 높은 전기차, 배터리 및 디지털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석수. (2019).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아세안의 역할”. *동북아연구*, 34(1), 127-152.
- 김석우, 문경연, & 이진영. (2021). “동남아시아를 둘러싼 국제·지역환경 변화와 한국의 아세안 (ASEAN) ODA 정책 모색”. *국제지역연구*, 30(1), 207-238.
- 김형중. (2020). “코로나 19 감염병 사태와 신남방정책: 아세안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30(3), 21-54.
- 배기현. (2016). “호주와 일본의 대아세안 지원 협력 비교: 다자 효용성을 중심으로”. *국가안보와 전략*, 16(3), 189-224.
- 배기현. (2017). “일본과 중국의 대 (對) 아세안 협력: 경쟁과 수렴”. *신아시아*, 24(2), 150-174.
- 산업통상자원부. (2022)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정식 서명으로 아세안의 디지털 허브, 싱가포르와의 디지털 동맹 구축”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 11. 21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37688> (검색일자: 2022. 12. 11)
- 원용걸. (2020). “한국의 對 ASEAN 공적개발원조 (ODA) 와 수출”. *동북아경제연구*, 32(3), 107-136.
- 유현정. (2020)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 목표·전망 그리고 한국의 대응”, INSS 연구보고서 2020- 13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0), 19-41
- 이기완. (2011). “일본의 대 동남아 인식과 정책: 변화와 지속의 동학”. *국제정치연구*, 14(1), 301-320.
- 이지영. (2018). 일본의 대 ASEAN 전략의 변화. *21세기정치학회보*, 28(4), 125-146.
- 정호경. (2021). “중국 디지털 실크로드의 아세안 확장과 동인 (動因) 분석”. *국제정치연구*, 24(3), 227-261.
- 최영미. (2021). “중견국 외교로서의 신남방정책의 평가와 발전 방향: 한-아세안 관계를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31(4), 77-95.
- Banlaoi, R. C. (2021). “Counterterrorism Cooperation between China, ASEAN, and Southeast Asian Countries”. *China Review*, 21(4), 141-170.
- Bi, S. (2021).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ASEAN under the building of ASEAN Economic Community”. *Journal of Contemporary East Asia Studies*, 10(1), 83-107.
- Charissa, Yong, “Singapore Will Not Join Indo-Pacific Bloc for Now: Vivian.” *The Straits Times*, 15 May, 2018

- Gadd, Adam. (2021) “Why South Korea Fell Behind Japan in Southeast Asia” *The Diplomat*. December
- Harding, Brian. (2019) “China’s Digital Silk Road and Southeast Asia”, *CSIS*, <https://www.csis.org/analysis/chinas-digital-silk-road-and-southeast-asia>. February 15, 2019
- Hastiadi, F. F. (2015). “China-Japan-Korea (CJK)’s FTA Strategy towards ASEAN Countries: A Game Theoretical Approach”. *Journal of Economic Cooperation & Development*, 36(3), 1.
- Lee, Y., & Chan, J. (2021). “China-ASEAN Nontraditional Maritime Security Cooperation”. *China Review*, 21(4), 11-37.
- Liu, S., & Feng, X. (2021, March). “Spatial-Temporal Evolution and Correlation Effect of FDI from China, Japan and South Korea to ASEAN”. In *IOP Conference Series: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 (Vol. 693, No. 1, p. 012032). IOP Publishing.
- Tang, Siew Mun, Hoang Thi Ha, Anuthida Saelaow Qjan, Glenn Ong, Pham Thi Phuong Thao. (2020) *The State of Southeast Asia: 2020*. Singapore: ISEAS-Yusof Ishak Institute. <https://www.iseas.edu.sg/articles-commentaries/aseanfocus/the-state-of-southeast-asia-2020-survey-report/>
- “The Bounty of the Open Seas: Five New Principles for Japanese Diplomacy”, Policy speech addressed by H.E. Mr. Shinzo Abe, Prime minister of Japan. Jan 18, 2013, Jakarta. [https://www.mofa.go.jp/announce/pm/abe/abe\\_0118e.html](https://www.mofa.go.jp/announce/pm/abe/abe_0118e.html)
- Seah, Sharon, Joanne Lin, Sithanonxay Suvannaphakdy, Melinda Martinus, Pham Thi Phuong Thao, Farah Nadine Seth, Hoang Thi Ha. (2022). *The State of Southeast Asia: 2022*. Singapore: ISEAS-Yusof Ishak Institute. <https://www.iseas.edu.sg/articles-commentaries/state-of-southeast-asia-survey/the-state-of-southeast-asia-2022-survey-report/>
- Yoshimatsu, H., & Trinidad, D. D. (2010). Development assistance, strategic interests, and the China factor in Japan’s role in ASEAN integration. *Japanes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1(2), 199-219.

## Abstract

---

South Korea is seeking to increase cooperation with ASEAN to diversify the current diplomatic strategies which focus on superpowers. The New Southern Policy, which has been implemented since 2017, is a representative policy to promote cooperation with ASEAN countries, and President Yoon Suk Yeol recently announced the 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to pursue deeper cooperation with ASEAN within the framework of Korea's Indo-Pacific strategy. Meanwhile, China agreed to upgrade it to a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last year. Since the 2010 China-ASEAN FTA,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China and ASEAN have been increasing rapidly, and through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China extends its influence on ASEAN. Japan has had a very large influence in the ASEAN region for a very long time. Japan's recent policy toward ASEAN is an important part of its broader strategy to respond to and contain rising China.

There are many research that have studied each of China, Japan, or Korea's ASEAN policies, but there are relatively few studies comparing policies with each other. This study compares the ASEAN policies of Korea, China, and Japan in the fields of foreign affairs, economy, and security, and examines ASEAN public's perception through Big data and survey analysis. It also discusses what policies and strategies are needed for the development of cooperativ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ASEAN.

**Keywords:** ASEAN, Korea-ASEAN, Japan-ASEAN, China-ASEAN, Cooperation



우)6354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77-24(중문동)  
Tel: (064)735-6500 / Fax: (064)738-6522  
[www.jpi.or.kr](http://www.jpi.or.kr)